

# 기업의 고급인력 수급방향

太平洋化学(株) 常務理事 徐 恆 源



세계 선진각국들의 최신 과학이론의 정립과 기술의 발전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 국내의 學界 및 產業界에 있어서도 근간 몇년 사이에 과학과 기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국내 生物工業 관련분야를 놓고 볼 때 1982년을 전후하여 遺傳工學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生命現象의 기본을 이해하면서 이를 산업적으로 응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움직임을 통하여 生物工學이라는 용어도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왔다. 학계에 있어서는 생물공학 관련학과 및 연구소의 신설로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고 산업계에서도 관련연구소 및 연구부서의 新設 및 확대개편으로 연구원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 研究人力의 質的·量的인 측면에서 볼 때 선진국과 비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선진각국의 新物質 開發을 통한 신제품의 보급은 점차 확대일로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료수입을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또한 物質特許制度 도입은 금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基本素材 개발을 통한 경쟁력있는 신제품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基礎研究분야와 高級技術분야의 人力개발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양성된 고급인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본 논고에서는 다음 몇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산업계에 있어서 고급인력 수급의 문제점 및 그 해결방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로 기업연구소 및 생산종사자는 새로운 지식의 再充電을 통하여 생산현장에 적극적으로 응용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한 국가

의 과학·기술수준은 무엇보다도 연구·기술인력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특히 기업체의 연구·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고급인력의 경우는 다양한 새로운 지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신제품의 개발 및 생산에 응용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거나 적절한 습득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는 기존의 지식을 답습하거나 경험에 안주하기 쉽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기술수준의 낙후를 초래하게 되고 선진국의 기술종속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 선진 각국들은 우리나라에 수입자유화나 시장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고급기술 이전을 기피하거나 물질특허제도 도입을 강요하여 독자적인 최신기술개발의 기초를 흔들여 놓고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 6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서 대학이나 정부산하 연구소를 통하여 산업계 수요에 대응한 고급인력을 중점적으로 양성하려는 정책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고급기술의 지속적인 축적 및 응용을 위해서나 학문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둘째로 산업계에서의 인력개발은 理論과 實務를 겸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생물공학 및 관련산업분야의 수준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생물공학과 관련 연구인력도 선진국에 비해서 양적·질적인 면에서 크게 뒤지고 있다. 다시말해서 이 분야에 관련된 고급인력들은 대체로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學問的 理論이나 技術습득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이 생물공업 분야에 투자하려는 기업이나 기존의 관련기업체의 생산기술부문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人力의 확보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生物工業의 발전 정도는 개발물질의 대외 경쟁력 있는 商品化로 집약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제품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도 중요하겠으나 그러한 기초연구 성과의 企業化 및 工程改善을 통한 生産性 向上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생산기술적인 노우하우의 축적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人力養成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大學이나 相關연구소가 인식해야 할 점은 다음의 몇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이다. 우선 國內 大學·大學院의 學問的 연구수준을 提高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특히 생물공학 분야는 인접학문의 발달로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이론이나 현상이 밝혀짐과 함께 附加價值的 創出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수한 인력을 해외에 流出시켜 양성을 시키기 보다는 長期的인 측면에서 보아 國內의 大學院제도를 活性化시켜 국제적 수준을 지닐 수 있는 人力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學界에 대한 정부 및 민간기업의 연구비를 증액·투자하여 體系的인 지원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學界는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관심을 갖고 理解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계는 기업의 문제점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기업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革新的 技術을 제공할 수 있는 轉機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학계는 最新의 情報을 신속히 수집하되 산업화가 가능한 부문을 선정하고 基礎研究의 수행을 통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을 先導할 수 있는 입장에서 研究 및 教育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계에서 양성된 人力은 기업체에 있어서도 명실공히 중추적 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能力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이제는 기업도 中·長期的인 研究·開發에의 지속적 투자를 통하여 技術革新 및 경쟁력 있는 신제품개발에 진력해야 할 때이다. 이를 効率的으로 수행할 수 있는 方案은 施設·設備投資도 중요하겠으나 高級研究 및 技術人力을 꾸준히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효율적으로 活用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는 人材養成을 지속적으로 推進해 나갈 수 있는 經營方

針을 設定하고 이에 대한 企業觀을 확고히 함과 아울러 研究環境 및 처우개선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人力개발을 기업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가 어려우므로 학계와의 共同努力으로 人力의 再教育 또는 共同研究를 통하여 실시하고 연구성과 및 재정적 측면에서 相互補完의으로 추진하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금년에 정부가 내년 봄학기서부터 산업체에 民間科學技術院을 設置키로 한 것은 기업체의 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意味가 있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학계 및 정부출연 연구소는 기업의 기초연구 부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선진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生物工學의 연구 발생지이자 근원지는 대개 大學의 研究室과 專門研究機關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실에서 개발된 새로운 기술의 잠재력을 인식하여 생물공학관련 기업으로 발전시킨 예는 많다. 또한 기업적인 입장에서 볼 때 대학에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人力과 접촉함으로써 기업은 많은 기초연구관련 설비와 인력이 요구되는 기술을 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반면에 학계의 입장에서 보면 다양하고 포괄적인 기업의 연구과제 해결노력을 통하여 학문적으로 보다 창조적인 방향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계기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는 기업과의 제휴를 가능케하며 대학의 教育·연구수행상의 재정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기초연구 분야와 응용분야가 共存하여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產學이 共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바야흐로 정부의 적극적 지원아래 우리나라의 科學技術系는 올해를 기술선진화의 첫발을 내디디는 해로 삼아 각 분야별로 國產技術開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精密化學 및 遺傳工學(生物工學) 분야에의 투자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생물공학의 실질적 역사는 일천함으로 해서 산업체가 필요로하는 인재가 부족한 실정이고 더구나 이 분야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고급연구인력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 결국 학계나 산업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적재적소의 분야에서 능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의 개발을 독자적으로 특성있게 추진하되 나아가 相

互人力交流制度를 심화·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정부의 관련부처에서도 이러한 점을 명심하여 學界와 產業界가 현재 당면한 人力開發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효율성 있게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업의 고급인력 양성은 정부의 중장기적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수급정책하에서 學界, 產業界 및 研究機關의 상호보완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30 page에서 계속 >

---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국가예산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구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한다.

이 제안의 초점은 특정연구개발사업을 통한 박사학위제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되 동 제도의

수용여부는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하며,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산업체의 연구원에게 당연히 박사학위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박사학위는 언제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수여되어야 할 것이다.